

■ 문화현장 보고

2012년 에든버러 페스티벌 답사기

- 밀리터리 타투와 프린지 페스티벌 -

민경우*

프롤로그

지난 8월 20일 나는 7박 8일 일정으로 남이섬 관계자들과 함께 런던에서 열리는 제33회 IBBY(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국제어린이도서협의회) 세계총회에 참석했다. 그 기간은 마침 세계 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때였다.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를 맞게 되어 서둘러 일정을 맞춰보았다. 그렇게 해서 에든버러에 머물게 된 3박 4일, 그 중 제대로 페스티벌을 관람할 수 있었던 기간은 단 이틀뿐이었지만 어쨌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 세계인을 그곳으로 끌어들이는지 알아차리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만큼 에든버러는 도시 전체가 축제에 녹아들어가 있었다.

에든버러는 가히 축제의 도시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일 년 내내 수많은 축제가 벌어진다. 인구 45만 명에 불과한 에든버러가 연간 1천 2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 데는 바로 이 축제 전략이 있었다.¹⁾ 4월의 과학 축제, 5월의 아동극 축제, 6월의 영화 축제, 12월 31일 밤의 호그마니 등 공식적인 축제만 12개에 이르고, 8월 한 달 동안엔 밀리터리 타투(Military Tattoo), 프린지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필름 페스티벌 등 총 7개의 축제가 개최되어 다양한 테마를 동시에 맞출 수 있다.²⁾ 이 페스티벌들의 수준이나 규모는 단연코 세계 최고이며,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1) 김춘식·남치호, 『세계 축제경영』, 김영사, 2006, 101쪽.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축제들은 참가자, 지역민, 관람자 모두에게 상승적 효과를 가져 온다. 마치 내가 그러했듯 관객들은 이 축제와 저 축제 사이를 오가고, 예술가들은 여러 축제에 교차 참여하여 각각의 축제는 서로 유기적 연대를 이루게 된다.

에든버러가 이런 페스티벌들을 개최하게 된 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47년 전쟁 직후의 상흔을 견어내기 위한 노력과 유럽 국가들의 재통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영국 정부와 에든버러 시의 후원으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시작되었다. 가장자리,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린지(fringe) 페스티벌의 역사도 이때와 함께하는데, 당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청받지 못한 6개의 스코틀랜드 극단과 2개의 잉글랜드 극단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주요 극장 주변부에서 자신들만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카페, 교회, 길거리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인 공연을 열었던 이들의 발상은 언론과 관객의 주목을 받았고, 프린지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예술 축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메이저 페스티벌이 되었다.³⁾ 실제로 2008년 8월 3주 동안 무대 위에 올라가는 31,320번의 공연을 다 보기 위해서는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재미있는 분석⁴⁾이 있을 정도로 프린지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공연단 혹은 공연자와 관객이 문화의 향수에 흠뻑 취하기 위해 모여드는 축제의 꽃이며, 그 기간의 에든버러는 유럽의 문화 수도가 된다.

8월 20일 저녁, 에든버러 공항에 도착하여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 속에서 나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색창연한 도시 에든버러의 풍광 그 자체이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중세의 돌길들, 수백 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웅장한 건물들, 저 멀리 에 그러나 너무나도 뚜렷이 보이던 절벽 위의 고성. (<그림1>) 이 도시는

2) 은은기, 「글로칼리즘(지역의 세계화) 성공 사례」, 『인문연구』 58호, 863쪽.

3) 위의 글, 863-864쪽.

4) 위의 글, 871쪽, 각주 22) 참조.

해리 포터가 빗자루를 타고 다니며 퀴디치 게임을 하고, 꼬마 요정 도비가 튀어나와 시중을 들 것만 같은 이야기가 있는 장소였다. 조앤 롤링이 이 도시에 앉아 이야기를 썼다 기보다는, 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문화



〈그림 1〉 스코틀랜드 수도였던 에든버러의 고성

도시를 만들고,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에든버러는 영겁의 세월을 통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페스티벌들은 그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그저 길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꼬박 이틀 간 나는 두박두박 에든버러를 걸으면서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펼쳐지고 있던 다양한 공연들을 보았고, 축제를 한껏 즐기고 있던 관객들을 살폈다. 그러면서 내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어우러진 분위기를 남이섬에서도 창출해낼 수 있을까'였다. 이런 화두를 가지고 나는 프린지 페스티벌과 더불어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밀리터리 타투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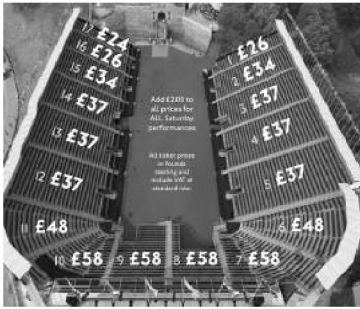
8월 21일: 밀리터리 타투

매년 8월의 첫 번째 금요일에 개막하여 마지막 토요일까지 23일 간 개최되는 군악대 축제인 밀리터리 타투는 동일 페스티벌 중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 축제는 1950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스코틀랜드 군악대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약 1200만 명이 타투를 관람했고, 매년 217,000명 정도가 관람한다. 방송을 통해 해외에서까지 관람하는 수를 가름하면 한 해에 대략 1억 명 정도가 된다. 현재까지 40여 개국이 타투에 참여했고, 직접 에든버러에서 타투를

관람하는 관객 중 70%는 스코틀랜드 밖에서 왔으며 그 중 절반정도는 해외에서 왔다.⁵⁾

타투라는 말은 ‘Doe den tap toe(술병 마개를 닫으세요)’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17, 18세기에 베네룩스 국가에서 선술집 주인들이 외치는 소리였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고적대가 파이프를 불고, 드럼을 치며 돌아다녔고, 이 음악 소리를 들은 주인들은

“Doe den tap toe”라 외쳤던 것이다. 이 말의 ‘tap toe’에서 ‘tattoo’라는 말이 나와 군악대의 행진을 뜻하게 되었다. 타투 관람권은 6개월 전에 매진이 되는 탓에 뒤늦게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결정 된 우리는 사실 타투 관람은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도 밀리터리 타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미 2013년 타투를 준비하고, 12월에 있을 티켓 오픈을 공지해놓고 있다. 이는 그만큼 관객의 관심도가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 으론 당연히 관람을 포기하고 있던 차에 현지 코디네이터에게서 마침 환불 된 티켓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티켓은 46파운드, 우리 돈 대략 10만원 정도였고, 좌석은 <그림 2>(이 좌석표는 2013년 타투 좌석표이다)에서 11번 구역이었다. 코너에서 약간 빗겨 정면을 향하고 있어 타투의 배경인 고성을 마주볼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자리였다.



<그림 2> 2013년 밀리터리 타투 좌석표



<그림 3> 밀리터리 타투 공연 모습

5) Royal Edinburgh Military Tattoo <http://www.edintattoo.co.uk/about-the-tattoo/tattoo-fact-file> 참조

저녁 8시, 시내의 언덕 위에 자리한 에든버러 성으로 향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에든버러 성은 화산 활동으로 솟아오른 해발 140미터 정도 높이의 산 정상에 있으며, 가파른 절벽이 성의 세 면을 둘러싸고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위압감을 가지고 있다. 밀리터리 타투는 바로 이 성을 배경으로 삼아 화려하게 펼쳐진다. 오래된 도시에서 그 도시를 지배하던 성을 무대로 힘찬 군악대의 연주를 듣고 있자니 나는 자연스레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시간 여행자가 된 듯한 신비로운 기운에 휩싸인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관중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수시로 탄성을 질러댔다. 세월의 때를 머금어 더욱 웅장한 고성에 점차 어둠이 깔리자, 그 고성의 실루엣을 도화지 삼아 색색의 조명이 화려한 그림을 그렸다. 이 조명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고성과 성을 수놓는 조명은 밀리터리 타투 페스티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림3>).

적절한 조명의 사용은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가을이 되면 가을밤 야외 음악회라든지, 경복궁 야간 개장과 같은 행사에서 조명으로 가을의 정취를 배가시켜 감성을 자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나는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호모 사피엔스)’이기 이전에 ‘유희하는 인간(호모 루벤스)’이며 유희의 밑바탕에는 ‘느끼는 인간(호모 에스테티쿠스)⁶⁾’이 깔려있다고 본다. 인간이 호모 루벤스이기 때문에 문화가 창출되었다면, 그러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호모 에스테티쿠스로서의 인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인가 감성적 동물인가에 대한 논쟁이야 해묵은 철학사의 단편이지만, 우리의 행동에서 많은 부분이 감정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은가. 다양한 문화 행사들의 성공 요소로 내러티브가

6) 호모 에스테티쿠스(Homo Aestheticus)에서 ‘aestheticus’는 ‘aesthetic’에서 나온 말로서, 흔히 ‘미학적’ 혹은 ‘심미적’이라고 번역된다. 이 단어의 어근은 그리스어 ‘aesthet’으로서 ‘느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필요하다 했을 때 이것은 결국 내러티브가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하여 그들을 행사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역사를 담보로 하는 내러티브를 함유한 고성(古城)이 배경이 되고, 감성의 자극제인 조명이 이 성을 화폭으로 삼고 있는 밀리터리 타투 페스티벌은 호모 에스테티쿠스로서의 인간을 사로잡는 최고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저녁 9시 정각, 개막 팡파르가 울리자 도성에서는 축포를 쏘았고, 성문이 열리자마자 도개교를 건너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인 킬트를 입은 군악대가 백파이프를 연주하고 드럼을 치면서 등장했다. 올해의 타투 페스티벌은 총 1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핵심출연진은 스코틀랜드 사단의 보병부대이며, 호주,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지에서 온 해외 군악대가 함께했다. 각국의 제복을 차려입은 수십 명의 군인들이 힘찬 음악을 연주하면서 열 맞춰 행진하면서 보여주는 절도 있는 군무는 너무나 멋졌다. 관람객들은 자국의 군악대가 소개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참관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음에 새삼 놀랐다. 잘 기획된 페스티벌이 얼마나 많은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그림 4〉). 밀리터리 타투의



〈그림 4〉 타투 페스티벌이 끝나고 상기되어 걸어 나오는 사람들

마지막엔 언제나 전 출연진이 함께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을 부른다. 사회자는 관객들에게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타투 페스티벌의 전통과 같은 것인데, 낯선 이들의 손을 잡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부르는 경험은 매우 색달랐다. 축제의 관조자가 아니라 일원인 된 것 같은 유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이 페스티벌에서 가장 뇌리에 깊이 박힌 장면이었다. 타투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는, 전날 저녁을 먹으며 보았던 그 무리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했다.

8월 21일: 프린지 페스티벌

어느 날 다소 험상궂어 보이기까지 하는 ‘미스터 빈’이라는 묘한 남자가 등장하더니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혜성처럼 등장한 이 남자는 프린지 페스티벌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부슬비가 내리는 호텔 밖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또 다른 미스터 빈을 꿈꾸는 수 많은 공연자들이 거리에, 식당에, 극장에, 교회에 넘쳐났다.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공연장이 되었다. 예약해놓은 러시아 극단의 <Time for Fun / Hand Made Theatre>가 시작될 때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전에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굳이 티켓을 사서 보는 공연이 아니어도 지금의 에든버러는 도시 전체가 공연장이고, 축제가 일상인 곳이었다(<그림 5>). 이것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 여행객을 불러 모으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시선이 닿는 곳엔 어김없이 무언가 볼거리가 있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혹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뜻하지 않은 즐거움과 마주칠 수 있었고,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는 이방인은 문득 요상한 분장을 한 배우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림 5〉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들

축제를 개최하자고 계획을 세우면, 늘 장소가 문제가 된다. 여긴 좁고, 지진 통제가 어렵고 등등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벤트 시설들을 짓고는 추후 장소의 활용 문제를 들먹이기도 한다. 워낙 많은 수의 공연들이 동시에 진행된 닷도 있었겠지만, 프린지 페스티벌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 페스티벌 조직위는 따로 대형 축제장을 조성하지 않고, 도시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장소의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다소 우중충해 보이기까지 하는 중세의 도시에 넘쳐나는 자유로움과 활력의 어우러짐은 신비한 매력을 발산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장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겨난 또 다른 이점은 바로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이다. 이는 프린지 페스티벌이 정부의 간섭 없이 다채로운 주제와 장르, 다양한 수준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비단 행사 초기 비용 절감 덕분만이 아니라, 프린지 협회의 구성과 역할 자체가 저비용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고 페스티벌을 운영할 수 있었다. 협회의 역할은 출판, 티켓 판매, 공연자와 청중에 대한 정보 제공에 국한된다. 주된 수입원 역시 이런 역할의 대가로 받는 회비가 전부이다.⁷⁾ 협회에서는 두 권의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 하나는 축제 참여 방법, 공연장 물색, 예산 마련 등과 관련된 『프린지 축제에서

7) 은은기, 앞의 글, 886쪽.



〈그림 6〉 공연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공연팀 〈그림 7〉〈Time for Fun〉 홍보 사진

어떻게 공연을 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과 마케팅에 관한 안내서인 『프린지 축제에서 어떻게 공연을 팔 것인가?』이다.⁸⁾ 이를 바탕으로 공연팀은 스스로 모든 진행을 도맡아한다. 따라서 누구나 장소만 확보된다면 어떠한 제한 없이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 자본의 문제에서 벗어나자 자연스럽게 획득된 공연의 자유는 결과적으론 구매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수천 개의 공연들을 평가하고 해외로 알렸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다시 더 많은 공연자들을 끌고 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관람객은 한편으론 자연스럽게 이 구조 속으로 유입되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공연할 수 있는 자유는 관람객에게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예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역으로 공연자들에게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뜻하기에 세계 각지에서 온 공연자들은 전단지 한 장을 나눠주더라도 최대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낸다(〈그림 6〉). 거리엔 공연도, 공연 홍보도 넘쳐났고, 어떤 공연을 볼지 고르는 과정 자체를 즐기도록 만들었다.

우리 일행이 고심 끝에 선택했던 러시아 극단의 공연 〈Time for Fun / Hand Made Theatre〉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르였다. 이 공연은 장르를 분류하자면 댄스에 속했는데, 소매를 걷어

8) 김춘식·남치호, 앞의 책, 115쪽.

올린 팔에 하얀 장갑을 낀 손이 UV 조명 아래서 춤을 추었다. 손은 어느 순간에 글자가 되었다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되기도 했고,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는 무용수들이 되어 있기도 했다. 손이 몸의 일부라는 생각을 잊고, 유연한 움직임에 홀리게 만든 공연이었다(〈그림 7〉).

사실 다양한 공연 홍보 중에는 유독 이런 비언어극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아마도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관객이 모이고, 또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팀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난타〉도 비언어극으로서, 1999년에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언론의 호평을 받은 이후 전회 매진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러브콜을 받고 국내 최초로 전용극장까지 설립하는 기염을 토했다.⁹⁾ 비언어극이라는 점에서는 미스터 빈의 공연도 마찬가지였는데, 비단 자본의 논리 때문만이 아니라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감각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자극한다는 것을 노렸다는 점에서 근래에 유행처럼 번진 신체의 현상학을 떠올리게 했다. 현상학자인 메를로-퐁티는 의식이 세계에 관여할 때 반드시 신체를 매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리대로라면 공연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데 있어서 언어가 장벽이 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신체 감각이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내가 본 공연도, 직접 체험한 페스티벌 현장도 그 점을 증명하는 듯 했는데,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공연팀들과 관객들은 신체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관객과의 어우러짐이 없이는 페스티벌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상기해 볼 때, 세계적 페스티벌을 발판으로 한 '지역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위한 요소로서 '신체'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필요성을 느꼈다.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산을 쓰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축제의 현장에서 비를 맞는 것은 본능을 자극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자고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축제를 벌인 이래로 약간의 광기는 축제를

9) 난타 공식 홈페이지 <http://nanta.i-pmc.co.kr/Nanta/kr/About/History.aspx> 참조.

흥겹게 만드는 용납 가능한 행위가 아니었던가! 중세의 도시 에든버러에 모인 이들은 말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 사실을 아는 것 같았다. 빗자루를 탄 해리 포터가 주문을 외울 것 같은 이 도시의 8월은 우리를 잠시 동안 마법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 밤 나는 어릴 적 언젠가와 같은 꿈을 꾸며 잠들 것 같았다.

에필로그

올해 프린지 페스티벌엔 총 47개국에서 온 22,457명의 공연자가 279개의 공연장에서 2,695개의 공연을 42,000여 회 무대에 올렸다.¹⁰⁾ 2008년의 분석을 토대로 산출해 보면 올해의 공연들을 다 보기 위해선 대략 8년 반 정도가 걸린다. 그 규모면에서 놀라운 것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고, 지난 60여 년간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에든버러는 잘 기획된 페스티벌이 어느 정도까지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신구(新舊)가 조화를 이루어 큰 힘을 발산하는 귀감 할 만한 창조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성과가 놀랍고 부러운 만큼 우리도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간절해졌다.

문화기획자로서 에든버러와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경험하면서 이런 세계를 어떻게 하면 남이섬에 맞는 형태로 재창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에든버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에 색을 입혀, 에든버러를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다. 남이섬에는 남이섬만의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 얼마나 고운 색을, 얼마나 다양한 색을 입히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그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작업을 통해, 여행가로서의 내가 에든버러에서의 날들을 그리워하듯이, 남이섬 방문자들도 그러했으면 한다. 단 며칠 머무른 나를 사로잡고,

¹⁰⁾ Kath Mainland, 'The way to carry out cultural exchange between two different cities through festivals in 21st century', 광주-에든버러 축제 교류 심포지움, 2012년 10월 6일 발표문 참조.

이렇게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 언젠가 다시 소중한 사람들과 꼭 함께 가고 싶은 곳이 되어 버린 에든버러를 남이섬에 만들어보고자 한다.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발견한 한 시인의 글귀가 생각한다. "There's no leaving Edinburgh... it stays with you always. (에든버러를 떠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도시는 항상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기획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항상 내면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